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7.03.~2025.07.09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승진, 대응, 대통령, 민원, 농업
경제·관광	크루즈, 항공, 농업, 스마트, 농가
지역·사회	열대야(폭염), 차량, 병원, 마을, 여성

※ 분석 기간 : 25.07.03.~25.07.09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승진	- 2025년 하반기 대규모 정기인사 - 주요 고위직 인사 및 친정 체제 구축 - 여성 공무원 약진과 소수 직렬 배려
	대응	- 이른 폭염 및 가뭄 위기 대응 - 고수온 현상에 따른 양식장 피해 최소화 -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오염 대응
	대통령	- 지역균형발전 강조 및 제주 정책 연계 - 국민 소통 행보와 제주 타운홀 미팅 기대감 - 제주 관련 대선 공약 입법화 추진
	민원	-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갈등 반복 - JDC 전 이사장의 국토부 비판 기자회견 - 도내 유통 식품 및 의료 서비스 민원
	농업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육 관리 비상 - 스마트 기술 접목 미래 농업 선도 - 청년농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크루즈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사업 성과 - 준모항 크루즈 상품 본격 소개
	항공	- 대한항공, 교통약자 지원 공로 - 제주공항, 9년 연속 효율성상 - 항공사, 여름 성수기 프로모션
	농업	- 월동채소 휴경사업 참여 부진 - 기후 위기, 1차 산업 위협 - 청년농 육성 및 첨단농업 지원
	스마트	-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본격화 - 농촌에 첨단 웨어러블 로봇 투입 -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지원
	농가	- 월동채소 휴경사업 참여 저조 - 농가 경영안정 금융 지원 확대 - 선도 농업인 시상 및 활동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열대야 (폭염)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사업 성과 - 준모항 크루즈 상품 본격 소개
	차량	- 대한항공, 교통약자 지원 공로 - 제주공항, 9년 연속 효율성상 - 항공사, 여름 성수기 프로모션
	병원	- 월동채소 휴경사업 참여 부진 - 기후 위기, 1차 산업 위협 - 청년농 육성 및 첨단농업 지원
	마을	-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본격화 - 농촌에 첨단 웨어러블 로봇 투입 -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지원
	여성	- 월동채소 휴경사업 참여 저조 - 농가 경영안정 금융 지원 확대 - 선도 농업인 시상 및 활동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7월 3일~7월 9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54건임
 - 정치·행정 분야 362건, 경제·관광 210건, 지역·사회 382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승진, 대응, 대통령, 민원, 농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승진	- 2025년 하반기 대규모 정기인사 ·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단행한 795명 규모의 하반기 정기 인사.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조직 개편 등으로 승진 요인이 발생하며 상반기 보다 76명 많은 198명의 직급 승진이 이루어짐 ·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심화 속에서 하위직 승진을 대폭 확대하여 조직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를 도모. 또한 성과우수자 발탁추천제를 통해 4급 2명, 5급 4명을 발탁 승진시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함 - 주요 고위직 인사 및 친정 체제 구축 ·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의 명예퇴직에 따라 후임으로 제주연구원에 파견됐던
-------	----	--

정치·행정	승진	과장이 승진 임명되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경험을 고려한 발탁으로 평가됨 양기철 이사관이 발령됨. 서귀포시 부시장에는 서귀포 출신인 김원철 총무 · 오영훈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던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유임되었고 , 신임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에 지연 또는 학연으로 얽힌 인물들이 배치되면서 '친정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분석이 나옴 - 여성 공무원 약진과 소수 직렬 배려 · 이번 인사는 4급 승진자 전원을 여성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여성 엘리트들의 약진이 두드러짐. 문화체육교육국장을 포함한 핵심 5개 국에 여성 국장이 포진하며 공직사회 내 여풍을 입증함 ·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또한 눈에 띄는 부분으로, 간호직에서 서기관 승진자가 나왔으며 ,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 5급 이하 전 직급에서 승진자가 배출됨. 서귀포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로 의료기술직 사무관이 승진 임용됨
	대응	- 이른 폭염 및 가뭄 위기 대응 · 예년보다 이른 장마 종료와 폭염으로 가뭄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대응에 나섬. 농업용 관정 급수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공 관정, 급수탑 등 장비 점검을 완료함 · 농작물 조기 파종 자제를 지도하고, 가뭄 취약 지역인 제주시 동부 지역에 대비한 관정 개방 및 물탱크, 송수 호스 지원책을 마련함.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함 - 고수온 현상에 따른 양식장 피해 최소화 ·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자,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상황실을 가동함. 이는 지난해 고수온으로 광어 221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선제 조치임 · 양식장에 액화산소와 면역증강제를 긴급 지원하고 있으나 , 양식업계는 반복 되는 땀질식 처방이 아닌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오염 대응 · 페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 구조를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 과거 '종달이' 구조 사례를 참고해 선박 접근, 포획, 치료 후 방류까지 체계적으로 논의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됨. 이는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대통령	- 지역균형발전 강조 및 제주 정책 연계 · 이재명 대통령,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정책 및 예산 배분 시 '지역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지시함. 이는 '5극 3특' 공약을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정 기조를 반영함 · 제주도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정책을 논의하고 ,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약 이행을 위한 그린수소 허브 구축, 분산 에너지 특구 등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며 연계를 강화함

정치·행정	대통령	- 국민 소통 행보와 제주 타운홀 미팅 기대감 · 이 대통령, 취임 후 광주와 충청 등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대통령실은 영남, 강원, 제주 등 권역별 순회 소통 행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릴 경우, 제주 제2공항,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주목됨. 이는 지역 현안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음 - 제주 관련 대선 공약 입법화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확대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 이는 제주 지역구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 절차가 본격화됨. 이는 생물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내 첫 시도로,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도 맞닿아 있음
	민원	- 동북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갈등 반박 ·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이 혼합되었다는 이유로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실력행사에 나섬.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민들은 불연성 쓰레기 반입 금지 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행정과의 갈등 끝에 육안 검사로 전환하며 소각장이 하루 만에 정상화됨. 하지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문제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음 - JDC 전 이사장의 국토부 비판 기자회견 · 경영평가 '미흡' 등급을 받고 사퇴한 양영철 전 JDC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고 이사장 인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함. 그는 국토부 출신 본부장의 개입으로 헬스케어타운 자산 인수 예산 집행이 보류됐다고 폭로함 · 양 전 이사장은 사퇴 과정에서 국토부가 특정 본부장을 보호하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극도의 부처 이기주의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사를 촉구함 - 도내 유통 식품 및 의료 서비스 민원 · 제주에서 판매되는 도시락과 밀키트 다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과의 비율도 불균형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저염식 제품 개발이 요구됨 · 지난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민원은 총 415건으로, 이 중 50% 이상이 안내 부족 및 불친절 등 '예방 가능한 민원'으로 분석됨. 이에 제주도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민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농업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육 관리 비상 · 이른 장마 종료 후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감귤나무 어린 열매가 떨어지는 '생리낙과'가 평년보다 늦어지고, 착과 불안정이 우려돼 과원 관리에 주의가 요구됨. 농업기술원은 생육 단계에 맞춘 정기적 물 공급과 병해충 예찰을 당부함 · 제주도는 농업재해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용 관정 급수 지원 및 수방 장비 점검 등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당근 등 주요 밭작물의 파종 시기를 앞두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임

정치·행정	농업	- 스마트 기술 접목 미래 농업 선도 · 전국 최초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감귤을 재배하는 'RE100 감귤' 생산 모델 실증 사업이 추진됨. 이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결합해 농가 소득 증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함 · 지역 전문가 중심의 월동채소 관측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생산량 및 가격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도록 지원함. 관측 대상 작물은 당근, 월동무에서 양배추, 브로콜리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임 - 청년농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 ·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시 애월읍에 242억원 규모의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함. 완공 후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해 줄 계획임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440억원 규모의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함. 전국 최저 수준인 0.7%의 저금리로 제공되며, 귀농인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크루즈**, **항공**, **농업**, **스마트**, **농가**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크루즈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 글로벌 시장 9%에서 20%로 향한 항해'를 주제로, 10여 개국 600여 명의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미래 전략을 공유함 · 올해 포럼은 기존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해양 바이오, 지역 관광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종합 박람회 형태로 확대 개편됨. 이를 통해 도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사로 기획되어 제주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목표로 함 - 제주 준모항 크루즈 사업 성과 · 제주에서 출발과 도착이 가능한 준모항 크루즈가 지난 5~6월 두 달간 10회 운항하여 1300여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함. 특히 외국인 관광객 183명이 제주 출발 크루즈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입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제주도는 준모항 활성화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 지출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하반기에는 '크루즈 준모항 국민 체험단' 운영,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준모항 크루즈 상품 본격 소개 ·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서귀포 강정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중국 상하이로 경유하는 '제주 준모항 크루즈 상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됨. 포럼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의 탑승권이 포함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임 · 준모항은 모항이 아니면서도 승객 탑승이 가능한 항구로, 제주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임. 제주도는 올해 2개 선사에서 33회, 3000명 규모의 준모항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항지 중심의 기존 크루즈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항공	- 대한항공, 교통약자 지원 공로 ·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이 응급환자 항공 이송 및 교통약자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관광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환자가 누운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의료용 침대(스트레처)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됨 · 매년 약 120명의 스트레처 중증환자와 1만여 명의 휠체어 이용객을 수송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 또한 스트레처 승객에게 항공료 할인 및 보호자 1인 무료 좌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음 - 제주공항, 9년 연속 효율성상 · 제주국제공항이 세계항공교통학회(ATRS)에서 주관하는 '공항운영효율성상'을 9년 연속 수상하며 아시아 지역 최고 공항으로 인정받음. 평가는 매년 전 세계 200여 개 공항의 운송량, 수익, 운영비용 등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팝업스토어 운영, 지역 특산품 판매시설 유치 등 여객 중심의 혁신적인 운영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흑자 전환을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음. 향후 스마트공항 고도화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경제·관광	항공	- 항공사, 여름 성수기 프로모션 ·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제주도 및 제주관광공사와 협력해 여름 휴가철 제주 방문객 유치를 위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함. '탐나는 티켓'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노선에 선착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의 항공비 부담을 완화함 ·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시장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제주항공은 중국 노선 확대 및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농업	- 월동채소 휴경사업 참여 부진 ·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하는 발작물 휴경사업 참여율이 목표치(674ha)의 16.2%(109ha)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는 최근 2년간 이어진 월동무, 당근 등의 가격 호조로 농가들의 생산 기대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재배의향 조사와 종자 신청량이 모두 증가해 올해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가격 안정을 위해 8월 29일까지 3차 추가 신청을 접수하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음 - 기후 위기, 1차 산업 위협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고수온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제주의 1차 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농업에서는 감귤 품질 저하 및 월동채소 생육 부진이, 수산업에서는 갯녹음 현상 확산과 양식장 폐사 피해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남 ·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과도한 자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제주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강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아열대 작물 도입 등을 추진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음 - 청년농 육성 및 첨단농업 지원 · 제주도가 242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에 4ha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 이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고 첨단 농업 기술 습득과 경영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됨 · 완공 후 청년 농업인들은 3년간 시설을 임대해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설립할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도 받게 됨. 이는 제주 농업의 스마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	-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본격화 · 제주농협이 지역 기후와 작목 특성에 맞는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이는 고가의 초기 투자 비용, 어려운 사후 관리 등 기존 스마트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된 신사업임 · 참여 농가 36곳을 대상으로 제주 과수 토경 재배에 최적화된 스마트팜 키트를 직접 제작·설치하도록 지원하며, 전문가 컨설팅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 청년농뿐만 아니라 장년농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실현을 목표로 함

경제·관광	스마트	- 농촌에 첨단 웨어러블 로봇 투입 ·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농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을 위해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실증사업'에 참여할 농가 42곳을 모집함. 이 로봇은 감귤 선과장 등에서 허리 근력을 30% 이상 보조하고 작업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춘 -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농 지원 · 선정된 농가는 4개월간 로봇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 및 데이터 분석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됨. 이 사업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형 스마트 영농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주도가 242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4ha 규모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함. 청년들이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신 시설을 이용하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임 · 해당 스마트팜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동시에 추구함. 완공 후 청년들은 3년간 시설을 임대하여 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며 첨단 농업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게 됨
	농가	- 월동채소 휴경사업 참여 저조 · 최근 2년간 이어진 월동채소 가격 호조로 인해 농가들이 올해 농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밭작물 휴경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음. 올해 1, 2차 신청 결과, 목표 면적의 16.2%에 불과한 109ha만 접수되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올해 재배 면적과 종자 신청량이 늘어 월동무, 당근 등의 과잉 생산과 그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수급관리연합회는 농가에 ha당 4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경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3차 추가 신청을 받고 있음 - 농가 경영안정 금융 지원 확대 · 제주도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40억 원을 융자 지원함. 전국 최저 수준인 연 0.7%의 저금리로 제공되어 농가의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 특히 귀농·귀어인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설 생산자단체에 대한 융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함. 또한,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8% 금리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융자 지원함 - 선도 농업인 시상 및 활동 · 구좌농협 조합원 송철주·오복민 부부가 농협중앙회 '이달의 새농민상' 7월 수상자로 선정됨. 이들 부부는 GAP 인증 취득과 농협 계통출하를 통해 고품질 당근을 생산하고 농업기술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 · 조천농협 안성현 상무 또한 농업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함. 공선출하체계 정비, 유통망 다변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실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음

지역·사회	열대야 (폭염)	-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폭염에 시달리는 배달, 건설,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등 생존을 위한 기본 조치를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함. 정부의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 폭염으로 손님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상인들은 높은 열음값과 어획량 감소,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삼중고를 토로함. 비 없는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수박 등 농작물이 강한 햇볕에 타 들어가는 '일소과'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음
	차량	- 음주운전 재범 및 단속 강화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지 8일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가 결국 구속됨. 이 운전자는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기도 함 · 경찰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 수준의 운전자들을 잇달아 적발함. 또한 새치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9월부터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임 - 10대 청소년 차량 연쇄 절도 · 중학생 2명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자 순찰차와 일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대담한 행각을 벌임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대의 차량을 훔쳤으며, 무인점포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남.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보호관찰법 위반 등으로 구인되어 소년원에 입소한 상태임 -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기승 ·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2명이 제주를 오가며 렌터카를 이용해 3년간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됨. 이들은 주로 회전교차로나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름 · 렌터카 교통사고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남. 경찰은 현재 여러 건의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음
	병원	-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 · 제주대학교병원은 내원 환자 및 타 병·의원의 MRI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MRI 장비를 평일과 휴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함. 이를 통해 예약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야간·주말 검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평일 야간과 공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제주시 연북로 나우메디의원을 포함해 총 4개소로 확대 운영됨. 이는 맞벌이 가정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인의료재단 한국병원은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를 새로 초빙해 고혈압·당뇨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함

지역·사회	병원	- 첨단 시스템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덕분에 심정지 환자가 33km 거리를 29분 만에 이송되어 목숨을 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 접근 시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이동 시간을 평균 16.5%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지난해 8,047건의 이송에 활용됨 ·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운항 2년 7개월 만에 출동 100회를 기록함. 100번째 출동은 하추자도 심질환 환자의 긴급 이송이었으며, 닥터헬기는 외상, 심장·뇌질환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지역 병원들의 성과와 새로운 시도 ·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이내에 드는 최우수 1등급을 획득함. 평가 항목은 전문인력 배치, 욕창 관리, 감염 예방 등 13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인정받음 · 중앙병원은 전립선 조직 제거 없이 요도를 넓히는 새로운 전립선비대증 치료법인 '아이틴드(iTind)' 시술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함. 이 시술은 회복이 빠르고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적어 기존 수술의 한계를 보완할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꾸준한 기부를 통해 제주 나눔리더 최대 기부액을 기록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됨
	마을	- 주민 주도 화재 진압 및 질서 유지 ·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인 조선옥 남원여성의용소방대장 부부가 신속히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나서 큰 피해를 막음. 이들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불길을 잡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함 · 제주시 신제주와 공항 일대에서 23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초질서 지킴이'가 활동하며 3개월 만에 1200건이 넘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바로잡는 성과를 거둠. 이들은 무단횡단 지도, 쓰레기 투기 계도뿐만 아니라, 분실물을 찾은 관광객을 돕는 등 따뜻한 현대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음 - 개발 및 행정 갈등 심화 · 제주시 제성마을에서 도로 확장 공사로 마을의 역사가 담긴 벚나무가 벌목된 후, 이를 기리는 시비 설치를 두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불거져 결국 시비가 하루 만에 철거됨. 제주시가 화합을 명분으로 시비를 설치했으나, 마을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함 · 구좌읍 동북리·북촌리 주민들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재활용품 등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섬. 이는 과거 마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행정의 관리 감독 부실과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됨 - 4·3 유적지 관리 소홀 및 역사 탐방 ·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언급되어 답사 명소로 떠오른 표선면 한모살 4·3 유적지의 표지석이 주차장 공사로 인해 임시 철거되

지역·사회	마을	면서 방문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발생함. 표지석이 사라진 자리에 추모 화환 등이 방치되어 있어 4·3 유적 관리에 대한 행정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옴 · 서귀포문화원 주관으로 머체왓숲길 등 화전민 터를 돌아보는 향토역사 현장 답사가 진행됨. 참가자들은 제주의 잊혀가는 화전(火田) 문화를 배우고, 4·3 당시 중산간에서 살았던 화전민들의 생활상과 애환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짐
	여성	- 각종 사건·사고 속 여성 피해 ·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4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저체온증과 저산소증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됨. 또한 애월읍 해안가 절벽에서 60대 여성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해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함 · 폭염 속에서 80대 여성이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제기됨.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40대 네팔 출신 한국인 여성도 열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여성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름 - 여성 활동가들의 법적 투쟁과 연대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여성 농민과 여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불법 재판 파기환송과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섬. 5개 정당과 국회의원 85명이 2심 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연대의 목소리가 나옴 ·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여성유족 100인이 곁 암수다' 포럼을 개최함. 이 자리에서 여성 유족들은 4·3 이후 겪어야 했던 교육 단절, 사회적 침묵 등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공유하며 기억과 연대를 통해 회복의 길을 모색함 -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리더십과 선행 ·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선옥 남원여성의용소방대장이 남편과 함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 귀감이 됨. 조 대장은 평소 의용소방대 활동을 통해 익힌 요령으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전함 · 여성패션 브랜드 김창숙부띠끄는 2억 원 상당의 여성 의류 5천여 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 또한, 한 이름의 여성 기부자는 국제가정문화원에 1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의 현금을 놓고 가 따뜻한 감동을 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